

2023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소식*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서는 9월 24일(일)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미사 : 13:30, 명동대성당, 주례(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행사 : 11:00~16:00, 가톨릭회관 앞마당
- 전통문화체험(페이스페인팅체험, 매듭팔찌만들기, 전통의상/놀이체험)
 - 나눔(플리마켓, 이주민법률상담, 캘리그라피 나눔)
 - 인식개선(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도서/영화 관련 퀴즈 맞추기, 행사 참여 스탬프 받기)
 - 공연(이주민 노래, 춤 공연)

현대 사회 안에서 이주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며,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순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주하여 먼 타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며 그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훌륭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강제 이주'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의 주제는 "이주할지 또는 머무르지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whether to migrate or to stay)입니다. 사회 안에서 삶의 자리를 잃고 내쫓겨야만 하는 많은 이를 위하여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느님 모습을 닮은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회 안에 특별히 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자녀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사회적 압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가지게 되는 작은 희망들은 우리 사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2023년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담화 中

◎ 담화문 원본은 이주사목위원회 홈페이지를(<http://www.seoulmigrant.net/>)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미사 안내*

문의 / 02.924.9970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최다혜 미카엘라, 박복식 블란디나, 선우정희 아녜스, 김군석 데레사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안내*

-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후원금 사용내역 QR코드)

2023. 09 제71호

펴낸날 2023. 09. 18.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신부님 글

이주할지 또는 머무르지 선택할 자유

+찬미예수님

이번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의 주제를 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머무를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며, 안정적 노동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 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주를 선택합니다.

현대 이주 문제의 가장 근본에는 인간 존엄성의 상실에 있습니다. 특별히 선택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이주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이런 문제들은 스며들어 있고, 우리도 이주민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유를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한 개인이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책임을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사도 2,44-45). 초기 교회는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다른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곧 나에게 돌아오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가끔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응원을 보내며 나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황님은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나아가 어떤 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공동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모퉁이 돌 하나가 됩니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9월 24일) 행사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명동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세례자요한 신부

남미공동체 소식*



지난 8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남미공동체 청소년 5명, 봉사자 1명 그리고 위원장 신부님께서 참여하였습니다. 세계청년대회(WYD)에 다녀온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홍해원 학생 : 처음 WYD를 갔을 때는 별로 흥미도 없었고 하느님에 대한 생각도 그저 그랬습니다. WYD를 통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여러 성지들과 성당을 다니며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바로 잡히고 얼굴,이름,나이,국적도 다르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미사를 하는 것과 교황님을 보았던 일이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WYD를 참여하기 전과는 달리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한마음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2027년에 서울에서 WYD가 열릴 때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느님을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지유 학생 : WYD를 갔다 온 후인데도 다시 정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WYD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 친분을 맺었는데 너무 좋은 값진 경험이었고 함께 떠난 서울대교구팀의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역을 도와주신 봉사자 동그란 마리아 선생님이 계셔서 수월하게 다른 나라 신지들과 소통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봉사자 선생님을 본받아 한국 세계청년대회에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WYD는 저의 꿈의 폭을 넓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자신이 한 단계 더 빛날 수 있는 보탬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산타워에서 뷰를 보고 꿈을 꿨다면, 이번에는 파리 에펠탑에서 뷰를 본 것 같은 다양한 것을 접한 후의 마음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말 좋은 기회를 제게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프레사 누아!

홍석연 학생 : 인종과 나이가 다름에도 종교를 통해 하나가 되어 성지 순례와 미사를 함께 했다는 것이 뜻 깊었습니다.



하이로 학생 : WYD에서 아주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 성당들을 돌아다녔고 포르투갈에서 홈스테이를 아쉽게 못했지만 체육관에서 포르투갈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많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교황님 미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넘어졌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네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다." WYD를 다녀오고나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고 팀원들과 신부님과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2027 WYD를 기다리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드로 학생 : 처음으로 스페인을 가서 처음에 떨렸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스페인 대성당들을 다니며 스페인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버스로 7시간을 이동하였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기쁘게 다녔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교황님을 만난 그 순간이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황님을 뵈려고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교황님을 뵈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4년 뒤에 다시 WYD 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WYD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하계 캠프 소식*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필리핀 공동체, 베트남 공동체에서 무더위를 피해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마고네 지역아동센터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장소를 의견을 나누어 7월 21일 ~ 22일 강릉 바닷가 근처의 카리반 캠핑장에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캠프가서 하고 싶은 것도 함께 정하여 더욱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리핀 공동체와 베트남 공동체도 1박 2일 해수욕장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비가 와서 다양한 활동을 못했지만 1년에 한 번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이런 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의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힐링의 시간으로 충분했습니다. 좋은 추억 쌓고 내년을 기약해봅니다.



〈필리핀 공동체〉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베트남 공동체〉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소식*



부모님의 나라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늘은 내가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제 포함하여 각 나라 음식에 관심 있는 학생들로 짝을 지어 자신의 나라 문화와 특색있는 간식 메뉴를 짜고 장비부터 요리까지 전 과정을 참여해서 센터친구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17명 학생이 필리핀, 콜롬비아, 프랑스, 볼리비아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요리 만드는 건 원래 재미있고 좋은데, 부모님의 나라 음식을 소개하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니깐 더 맛있고 좋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나라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부모님 나라에 대한 흥미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요리로써도 소통해보는 기회를 가지며 부모님의 나라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즐겁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공동체 소식*



인도네시아 공동체는 약 10여 명의 신자들이 매주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사 후 식사 나눔을 하며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고 주기적으로 뜻깊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하여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헌혈을 선택하기 어려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타지에서 힘을 보태주고 있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